

전남 교사·학생, 네팔 눈사태 ‘하마터면’

히말라야 트레킹 나선 청람중·한울고 21명 긴급 대피 안전한 철수에 안도감...충남지역 교사 4명 실종 상태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 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지난 17일 눈사태로 실종된 가운데 당시 전남지역 학생과 교사들도 트레킹 중이었으나 눈사태 소식을 접하고 철수에 불상사를 피했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히말라야팀’ 학생과 교사 등 21명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등반에 나섰다가 눈사태 소식에 곧바로 철수했다. 현지 시각 17일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가 발생,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인 데우

랄리 지역(해발 3천230m)을 지나던 충남 지역 교사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전남지역 인성교육특성화학교 청람중과 한울고 교사·학생 21명도 당시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해발 3천m 쯤에서 폭설과 눈사태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하산했다. 원정대원들은 이날까지 해발 4천170m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도착해 임무를 완수 후 귀국할 예정이었다. 산사태 소식에 이들은 지난 18일 1천565m 지점인 란드룩까지 내려왔으며, 이날 오스트리아 베이스캠프를 거쳐 20일

당초 출발지점인 포카라로 돌아온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트레킹에 참가한 전남지역 한 교사는 문자를 통해 “전남지역 연수단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데우랄리 지역의 왼쪽인 고라파니와 올레리, 힐레를 거쳐 포카라를 경유했다”며 “연수 참가자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다”고 전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도교육청 청소년미래 도전프로젝트팀에 선정된 뒤 7개월간 국내 등산 활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9박10일 일정의 히말라야 트레킹 도전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번 히말라야 도전에 전문산악인인 자연탐구수련원 소속 직원을 동행하게 해 안전한 산행을 도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일 네팔 성귀라폴 시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네팔 전남휴먼

스쿨 준공식 행사에 참석해 현지 학생들과 공동학습, 문화 교류 활동을 펼쳤다. 장석웅 도교육감은 원정대와 일정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눈사태가 나기 전 철수해 귀국한 상태다.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가 나 한국인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긴급속보로 전해지자,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교육청과 학교 측에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 문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무사 귀환 소식을 전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트레킹 도중 눈사태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곧바로 철수를 결정했다”며 “현재까지는 다치거나 놀란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5·18부상자회장에 김이중씨 “사단법인 공법 단체화 힘쓸것”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 부상자회) 신임 회장에 김이중(61) 전 부회장이 선출됐다. 19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남 대의원 투표에서 49표 중 31표를 받아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은 1980년 5월19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 동구 무등고시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틀이닥친 계엄군에 끌려가 구타·연행당했다. 그는 5·18 부상자동지회 홍보국장을 시작으로 5·18 부상자회 이사, 감사,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 회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되는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사단법인인 단체를 공법 단체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모의전형 진로체험 예비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의전형 진로 체험캠프'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대학교 용지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학생들이 단체대 부스에서 전공 진로에 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지어 있다. 이날 캠프는 예비 수험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애리기자

초중고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는다”

교육개발원 4천명 대상 여론조사...98%가 사교육 시켜

우리나라 초·중·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98%에 달하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전국 성인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

OLL)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평가는 ‘보통(C)’(63.5%) 수준이었다. 부정적(D+E) 평가(33.9%)가 긍정적(A+B) 평가(12.7%)보다 더 많았다. 5점 만점에 초등학교는 3.09점, 중학교는 2.82점, 고등학교는 2.49점으로 학

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초중고 학부모인 응답자들(833명)은 학교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신뢰도 점수가 5점 만점에 2.79점이었다. 심지어,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이 학부모의 56.1%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

1.9%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다소 심화됐다’는 대답이 30.9%로 전년도(1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부모인 응답자(969명)의 97.9%(949명)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답한 학부모는 20명(2.1%)뿐이었다. 학부모들은 초중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학벌 위주의 사회 체제 개선’(25.7%)을 꼽았다. 대입 선발 방식 개선(21.1%), 교원 전문성 제고(18.1%), 수업 방식 다양화(17.9%)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뒤따랐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

인천

서울

대전

전주

목포

흑산도

제주

충청

강릉

도도

대구

부산

여수

제주

해돋이 07:39 해질 17:48

달돋이 03:10 달질 13:51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60

감기 조심하세요

빨래 60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 70

급하지 않으면 미루세요

운동 70

실내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0-0	목포	10:28	02:58
목포	0-20		22:34	15:59
순천	20-20	여수	05:53	11:55
여수	0-20		17:46	23:58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서-북서/0.5-1.5m
면바다 서-북서/1.0-2.0m

오후 앞바다 서-북서/0.5-1.5m
면바다 서-북서/1.0-2.0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서-북서/0.5-1.0m
면바다 서-북서/1.0-2.0m

오후 앞바다 서-북서/0.5-1.0m
면바다 북서-북/1.0-1.5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월 21/화 (-2/10) (-5/5) (-3/8) (-6/7) (-3/8) (4/10)

22/수 (2/8) (-1/6) (2/9) (0/4) (0/5) (8/14)

23/목 (6/10) (2/7) (4/8) (4/7) (4/9) (12/13)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나체사진 합성’ 예비후보 또 현수막 내걸어

부동산정책 비판 내용 담겨

나체사진 합성 및 원색적인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가 또다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를 지역 예비후보(무소속) A씨는 19일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등극한 서구 한 5층 건물에 가로형 현수막과 세로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는 현수막을 통해 ‘집 없는 죄인 전세살이 너무 힘들어’ 등 높은 집

값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A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주년을 갖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현수막은 선관위의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A후보는 지난 12일 같은 건물에 높은 집값을 비판하는 원색적인 글과 함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나체 그림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일었다. /오송지기자

ACC 주변 권역 도심관광 활성화 본격 시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권역을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1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동구, ACC,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시관광협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건축단체 연합회 등 9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전당권 주변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확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상품 공동개발, 공동 프로모션 등 문화전당 권역을 광주 관광의 입문으로 활성화한다는 골자로 각 기관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역사인권 투어리즘 관광을 패키지로 연계해 전당권역을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오송지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MYK

+